

VIA DESIGN COLLECTION

EDITOR: CHANG NAM-HO COOPERATION: LAURENCE GEDOFFY'S LTD.



caftimage07-244, 2007

VITRA DESIGN MUSEUM MEETS KOREAN ARTIST

비트라, 한국적 정서를 소중하다

20세기 디자인의 역사와 지평을 기록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기구 역사에 깊이 남을 중요한 디자인 제품을 컬렉션해온 그들이 최초로 한국인 작가의 이트 파나체를 소장했다. 자연 소재와 전통 기법을 활용한 작품 안에 깃든 한국적 자연미에 가치를 둔 선택이다. 미래학자 롤프 빈센은 상품보다 가치를 사는 시대라는 자기 문화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독일 3대 회랑으로 꼽히는 미술을 숭상 결단리의 미술을 숭상 관장 역시 한국적 정서성을 지닌 작가 시도에 주목하고 전속 작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역사와 문화의 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대목이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이 지난 3월 총익대라고 최병호 교수의 이트 파나체 두 점을 소장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품을 드라는는 한국적 자연미 때문이다. 동그란 형태의 구체, 웅장한 목재, 자연 화강암 받침으로 단순한 형태를 만들어낸 그의 마나체(한) 이트 파나체는 실용적 가치를 물론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6년 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위대한 의자, 20세기 디자인: 100 Years 100 Chairs' 전시회 기록식 참석차 방한했을 때 최 교수의 작품을 보게 된 일맥이다. 본 폐막자 관장은 날이 지난 2007년 3월 최 교수의 작업실을 방문해 소장을 결정했다. 폐막자 관장은 작품의 소재와 기법, 미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하며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컬렉션의 다양성과 수준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caftimage 대우의 인장 05-222, 2005

국내 이트 파나체의 대우의 인장(한) 05-222가 최병호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트 파나체를 소개한 인물로 꼽힌다. 이트 파나체는 최 교수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